

국내 디지털 케이블 TV 정책방향



조윤구 • 정보통신부 방송위성과 사무관



I.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구미 선진국가도 놀라워할 만큼 정보 통신에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발전을 거듭해왔다. 세계 최초의 CDMA 상용화 성공, 세계 최고의 초고속망 구축 등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정부는 통신분야의 성공적인 디지털화 경험을 살려 방송분야의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작년부터 지상파 TV 5개 채널이 수도권에서 디지털 본방송을 시작했으며, 지난 3월 1일에는 SkyLife에서 디지털위성방송도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지상파 및 위성을 이용한 디지털 라디오방송도 각각 2003년과 2004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바야흐로 모든 방송매체의 디지털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1960년대초 지상파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도입된 유선방송은 1995년 종합유선방송이 시작되면서 단순한 난시청 해소의 차원을 넘어 다채널유선방송(Cable TV)으로 발전되었으며, 이제는 인터넷 등의 첨단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까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디지털 Cable TV

가 도입되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장차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디지털 Cable로 인해 본격적으로 우리의 생활에서 실현되고 완성이 될 것이다. Cable은 이제 방송전달 매체의 하나가 아니라, 홈네트워킹의 핵심매체로서 정보통신·방송의 가장 강력한 매체가 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케이블 정책은 단순히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의 디지털화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관련 산업과 서비스의 발전 및 성장, 나아가 가입자의 정보복지 향상 등에서 접근해야 한다.

여기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디지털 Cable TV의 표준과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디지털 Cable TV의 필요성 및 표준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본 후 디지털 Cable TV의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디지털 Cable TV의 의미와 필요성

Cable TV의 디지털화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SO)에서 전송망사업자(NO)의 전송

망을 통해 시청자까지 디지털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으로서, 디지털화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아날로그 방송시설의 프로그램을 디지털신호로 제작·압축·전송하는 장비가 추가로 필요하므로 기존 아날로그 시설을 디지털 장비로 대체 또는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Cable TV가 디지털화 되면 현재 아날로그 방송에 비해 잡음없는 깨끗한 화질을 즐길수 있으며, 채널 수도 현재(최대 110개)의 4~5배인 400채널 이상의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Cable TV는 다른 방송매체보다 유리한 양방향 및 고속·대용량 전송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데이터방송, VOD, 전자상거래 등의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이다.

Cable TV의 디지털화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지상파 및 위성방송이 디지털화를 통해 다채널화·고화질화 되고 있어 Cable TV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디지털화는 불가피하다.

둘째, Cable TV는 다른 방송매체보다 양방향 및 고속·대용량 전송이 유리한 특성을 살려 고품질의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방송, VOD, 전자상거래 등의 활성화를 통해 Cable TV의 수익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셋째, 국내 디지털 Cable TV의 도입은 새로이 형성되는 디지털 Cable TV 관련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국

내시장 기반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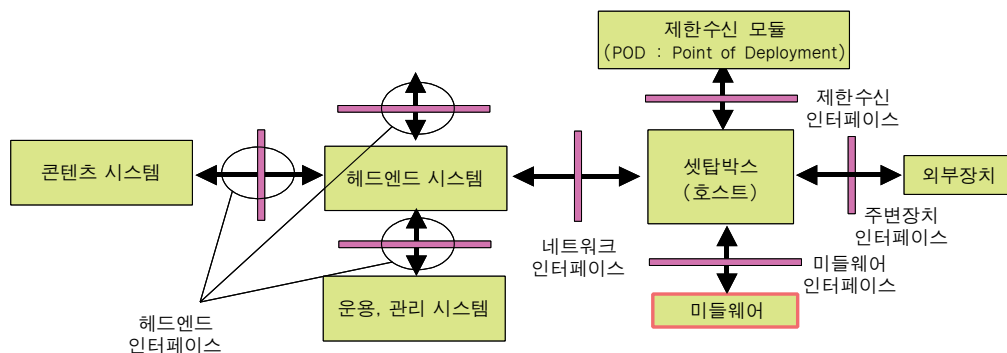
끝으로 디지털 Cable TV망은 아날로그 TV망보다 고품질화된 서비스가 가능하며, 인터넷 등 디지털화된 통신망과 접속·연계하여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새로운 핵심인프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Ⅲ. 디지털 Cable TV 표준의 중요성

1. Open Cable 방식의 특징

국내 표준으로 채택된 Open Cable 표준은 크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우선, 하드웨어는 셋탑박스(Host)와 셋탑박스로부터 보안 기능 및 수신제한 기능을 분리한 POD(Point of Deployment) 장치로 구성된다. 셋탑박스와 POD의 분리는 특정업체의 솔루션에 종속되지 않는 셋탑박스 생산·공급의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셋탑박스의 소비자구매 및 가격인하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의 경우 2005년부터 의무적으로 POD가 분리 장착된 Open Cable 방식의 셋탑박스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미들웨어인 OCAP(OpenCable Application Platform) 표준이 핵심이다. OCAP은 케이블 TV 방송에서의 양방향 서비스를 위한 애플



< Open Cable 개념도 >

리케이션 제작기반이 되는 표준이다. OCAP은 케이블 방송에 웹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시청자들에게 보다 진보된 양방향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 Open Cable 방식은 OCAP이라는 공통된 미들웨어 플랫폼을 사용토록 하여 애플리케이션 S/W 및 콘텐츠의 공유를 가능토록 하여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2. Open Cable 방식의 장점

여기서는 국제표준인 Open Cable 방식과 표준방식인 아닌 사업자의 독자방식 (VENDOR SOLUTION)과의 비교를 통해 디지털 케이블TV에서 왜 표준방식으로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 셋탑박스 등 관련 장비의 가격 측면

OPEN CABLE 방식의 경우 수신제한기능(CAS) 등을 수행하는 보다 고도화된 장치인 POD(Point Of Deployment)를 셋탑박스 본체(Host)와 분리하여 셋탑박스의 소비자 구매 및 가격인하 유도 및 특정 Vendor에 종속되지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특정 솔루션이나 특정 제품에 제약을 받지 않는 셋탑박스 개발이 가능하다. 그 결과 특정업체의 시장독점도 막을 수 있고, 관련 제품의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어, 국내외 어느기업도 기술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관련 시장에 뛰어 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즉, 보다 진화된 신기술인 OPEN CABLE 방식의 도입초기에는 셋탑박스 등 관련 제품의 가격이 다소 높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개방된 경쟁체제로 인해 셋탑박스 등 관련 제품의 가격인하를 도모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으로 귀결된다. 이는 DOCSIS 표준을 채택한 후 독자규격을 채택한 초기보다 1/10 정도

로 가격이 떨어져 60불 정도인 케이블모뎀의 경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반면에 CAS, 헤드엔드 시스템, 셋탑박스 등을 특정 벤더가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VENDOR SOLUTION의 경우 셋탑박스 등 관련 제품시장이 특정 벤더에 의해 독점적으로 지배되는 폐쇄적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개방된 경쟁체제 구축이 불가능하여 사업자는 특정 벤더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초기에 특정 벤더들의 특혜에 현혹되어 초기 시설 투자비를 절감한다고 하여도 수 년 뒤에 시장이 폐쇄된 형태로 형성된 이후에는 특정 벤더들에게 셋탑박스 등 관련 시설 투자시 더욱 많은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서비스 개발도 늦어질 수 밖에 없어, 이는 결국 사업자와 소비자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사업자들이 인지하고 OpenCable 표준화를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과 제품생산을 담당해야 할 모토롤라나 SA 등 강력한 벤더들의 반대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콘텐츠 활용 및 신규 부가서비스 활성화 측면

Global & Open Standard인 OPEN CABLE 방식의 경우 셋탑박스 및 미들웨어의 표준화에 의해 애플리케이션의 호환성이 보장된다. 따라서, OCAP 표준 미들웨어에 맞는 우수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경우 헤드엔드나 미들웨어에 종속되지 않으며, 해당 SO와의 계약에 의해서 즉시 운용이 가능하여 단일 솔루션으로 전국규모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홈쇼핑의 경우 우수한 T-COMMERCE 솔루션을 개발하면 전국 어디든 SO와의 계약만에 의해 공급이 가능하다. 결국 콘텐츠만 경쟁력이 있다면 전국의 SO를 대상으로 단일콘텐츠로 서비스할 수 있다.

반면, 특정 벤더(모토로라, SA 등) 솔루션의 경우 부가서비스를 운용하기 위한 미들웨어나 전송 프로토콜이 공개되지 않아 개별 콘텐츠 업체가 해당 헤드엔드 업체와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다. 따라서, SO는 해당 헤드엔드 업체의 라이선스를 획득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해당 헤드엔드 업체에게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제공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특정 헤드엔드(미들웨어 포함)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업체의 헤드엔드(미들웨어 포함)에서는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 라이선스를 받아 개발하거나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결국, 동일한 내용의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방식이 다른 VENDOR SOLUTION별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운영하여야 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선스 비용 및 애플리케이션 이용료는 헤드엔드 업체에 별도로 지급되어야 한다. 홈쇼핑의 경우 상품정보에 대한 부가데이터(데이터서비스)를 여러 가지 특정 헤드엔드에 맞게 실시간으로 재가공하여야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결국 특정지역(특정 헤드엔드 VENDOR)에 편중되어 서비스하는 구도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

IV. 국내 디지털 케이블 TV 정책방향

1. 기본 정책방향

채널수가 한정되고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공익성이 강한 지상파방송과 달리, Cable TV는 상업성이 강한 다채널 유료방송이므로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전환은 사업자가 주도적·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는 유선방송 사업자의 순조로운 조기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 Cable TV 관련 기술기준 및 표준을 제·개정하고 디지털 Cable TV 관련 기술개

발 및 시험·인증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자금의 용자지원 등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2. 디지털 Cable TV의 추진경과

1999년 디지털유선방송연구반을 구성·운영하여 디지털 유선방송 국내도입 정책방안을 마련하였고 2000년 3월 대통령업무보고에서 디지털 유선방송 추진일정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케이블 TV의 디지털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0년 4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디지털유선방송추진반을 구성·운영하여 각국 표준방식(미국 : Open Cable, 유럽 : DVB-C, 일본 : ISDB-C)의 체계적 비교 검증작업을 실시하였고, 기타 디지털 유선방송의 제도적·기술적 지원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표준방식 검증을 위해 2000년 11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디지털 유선방송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였다.

2001년 4월 디지털유선방송추진반을 추진위원회로 확대개편하였고, 추진위는 표준방식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미국방식(Open Cable)을 국내 유선방송 잠정표준 방식으로 선정하였다. 이어서, 추진위는 본격적인 Cable TV의 디지털화를 위해 기술기준제정반, 실험방송추진반, 데이터방송추진반의 3개 소진담반을 구성하였다.

2001년 11월 정보통신부는 그동안의 연구와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유선방송 기술기준을 제정하였고, 2001년 11월과 2002년 2월, 2차에 걸친 필드테스트를 통해 표준 검증과 신호레벨값 측정을 위한 실험방송을 실시하였다. 또한, 디지털 유선방송 기술기준의 세부규격인 송수신 정합표준 및 데이터방송 표준이 1년여에 가까운 작업을 거쳐 2002년 9월 중순에 TTA 표준총회의 인준을 거쳐 확정·공

고되었다. 이로써 국내에서 Open Cable 방식의 디지털 케이블 TV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3. 표준화 정책방향

표준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국내 디지털방송 표준을 시청자 편익, 세계시장 단일화, 수출산업화 등을 고려하여 국제표준(Global & Open Standard)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디지털 케이블 TV 표준도 국제표준인 OpenCable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OpenCable 방식을 채택한 데에는 무엇보다도 셋탑박스 및 양방향 부가서비스의 호환성이 고려되었다.

국내 사업자들은 표준방식(Open Cable)의 도입에는 찬성하나, 구체적 시행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MSO는 POD 분리형 Open Cable 방식의 도입과 더불어, Open Cable 방식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CAS 내장용 비표준 방식의 한시적인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Open Cable 방식은 셋탑박스과 CAS를 내장한 POD를 분리하여, 특정업체의 솔루션에 종속되지 않는 셋탑박스 생산·공급의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셋탑박스의 소비자 구매 및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CAS 내장형 셋탑박스 사용은 국내 표준으로 채택된 Open Cable 방식에 위배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

더욱이, 1999년경부터 국내외 업체들이 POD 분리형 셋탑박스와 POD의 개발을 시작하여,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는 상용화 제품의 출시가 가능한 상태이다.

디지털 케이블 TV 정책에서 서비스의 조기 도입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전망에서 개방된 국제표준 기술인 OpenCable 및 OCAP에 따른 서비스 도

입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 표준 방식 준수에 대한 관련 업계와 정부의 공동협력으로 표준방식을 만족하는 조기 제품생산 및 서비스도입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OpenCable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조기 디지털화를 원하는 유선방송사업자의 요구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금년 7월말에 디지털 케이블 TV 표준의 단계적인 적용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안에 의하면 POD 장착을 2003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초기에 미들웨어 없는 A/V 위주의 디지털 케이블 서비스의 도입이 가능하다. 다만, POD와 OCAP이 향후 시장에 출시되면 바로 도입할 수 있도록 STB가 POD 인터페이스를 갖추어야 하고 OCAP을 장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또한, 이 정책안은 디지털 케이블 TV 사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업자가 디지털 케이블 TV 서비스의 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즉, 사업자는 단순 A/V형 디지털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POD와 OCAP 둘 다 없는 경우, 유료채널 및 부분적인 양방향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POD는 있고 OCAP은 없는 경우, 유료채널·양방향 서비스 및 데이터방송 서비스 등 본격적인 디지털 케이블 TV 서비스를 제공하는 POD와 OCAP이 둘 다 있는 경우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한편, 미국 Cable 협회인 NCTA(National Cable & Telecommunications Association)가 POD 분리의무화 조항의 삭제를 FCC에 요구했다는 기사가 일부 국내신문에 보도되어 국내 디지털 케이블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있다. NCTA는 2002년 8월 FCC에 제출한 CAS 내장형 셋탑박스 사용금지로 인한 소비자 부담비용에 관한 보고서에서 CAS 내장형 셋탑박스 사용금지로 인해 소비자의 장비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장비선택의 폭을 줄이는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CAS 내장형 셋탑박스 사용 금지조항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FCC는 NCTA 보고서에 대하여 아무런 공식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국내외 전문가들도 정책환경의 큰 변화가 없는 이상 FCC가 기존의 POD 분리 의무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NCTA 보고서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NCTA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비용 상승요인은 신기술인 OpenCable 방식의 도입 초기현상인 측면이 있으며, 동 보고서의 비용정보는 Motorola와 Scientific-Atlanta와 같은 시장지배적인 제조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형성되어 자료의 객관성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동 보고서는 OpenCable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이 미비하다. OpenCable 도입에 따라 관련 시장의 경쟁환경 조성으로 인한 가격인하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클 수 있으며, 이는 도입초기 비용상승분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4. 국내 디지털 CATV 지원 세부 추진사업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촉진기금을 통해 전송선로 설비설치·시설보강, 디지털 헤드엔드 구축 및 지상파 디지털방송 재전송 시설설치 등 유선방송 사업자의 디지털 시설투자에 대한 장기 저리융자지원사업을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유선방송 사업자에게 3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까지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도 지원사업부터는 유선방송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재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이자율의 인하를 추진 중에 있으며, OpenCable 방식의 디지털 케이블 서비스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OpenCable 방식 조기 도입하는 사업자에 대한 우선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통부는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내에 설립(2001. 12월 말)된 디지털방송시험센터를 통해

디지털 CATV 기기개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장비도입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디지털 CATV 기기개발 시험·인증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정통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2년간의 연구기간(2001. 3. 1~2003. 2. 28)을 정하여 총 40억 원(정부 20억 원, 민간 20억 원)의 예산으로 디지털CATV 방송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 CATV Testbed 구축, 디지털 지상·위성망과 디지털 CATV망간 정합을 위한 프로토콜 변환기 개발, 디지털 CATV용 보안 시스템 개발, 디지털 CATV 방식 및 전송장비 시험·검증을 들 수 있다.

2001년 11월 유선방송국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시 방송국설비의 공동사용시 종전의 시도경계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통합네트워크 구축, Head End 장비공용화 등을 통한 디지털 투자비용의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01년 12월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범위에서 디지털 방송설비에 대한 투자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1990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수도권지역의 종합유선 방송사도 디지털방송 설비투자시 임시투자세액을 공제(10%)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V. 마치며

올해말부터 디지털 Cable TV가 시작되면 지상파·위성·유선방송 등 모든 방송매체가 디지털화되어 국내 방송산업은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와 같은 디지털방송 환경에서는 시청자의 채널 선택폭이 대폭 늘어나게 됨은 물론, 고화질 TV(HDTV)의 등장과 인터넷접속 등 부가

서비스 제공 등으로 국민은 손쉽게 편리하게 고품질 방송과 가정 정보화를 즐길수 있게 된다.

나아가 지상파방송과 유선방송 그리고 위성방송 간 시청자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내 방송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겪게될 것이다. 이러한 무한경쟁의 방송시장에서 디지털 케이블은 방송영역 뿐 아니라, 통신영역에 해당하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하여 향후 통신·방송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다른 방송매체보다 양방향성 및 고속·대용량의 데이터 전송이 훨씬 용이한 Cable TV가 향후 디지털 통신·방송시장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제 Cable TV의 디지털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다. 이는 단순히 방송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Cable TV의 산업구조, 시청자의 시청형태 등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매체혁명인 것이다.

따라서 Cable TV 업계에서는 디지털방송과 통신·방송 융합시대를 대비하여 디지털 전환을 철저히 준비함과 아울러, 멀티미디어 사업자로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통신사업자들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

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도 주력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규모의 경제와 통합(Synergy)효과를 위해 DMC(Digital Media Center) 등 효율적·통합적인 케이블 TV의 디지털화가 필요하다.

한편, 올 7월 30일 출범한 한국디지털케이블포럼은 케이블 TV 사업자, 제조업체, 학계, 정부 등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을 이끄는 중요한 협의체가 될 것이다. 따라서, SO 및 DMC 등 케이블 TV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끝으로 SO를 포함한 Cable TV 관련 업계에서는 디지털 전환시 국내 표준으로 채택된 Open Cable 방식을 준수하여 디지털 케이블 TV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CDMA의 예에서 보듯이, 세계 최초로 국내 기업에 의한 Open Cable 방식의 제품개발 및 상용화 그리고 국내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국내 디지털 케이블 TV 산업발전 뿐 아니라 향후 세계 디지털 케이블 TV 시장진출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텔 주도 홈 네트워킹 표준 제정 단체 '디지털홈워킹그룹' 곧 발족

인텔이 인텔개발자포럼(IDF)에서 홈네트워킹 관련 표준화 단체인 '디지털홈워킹그룹'의 전모를 공개할 것이라고 EET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디지털홈워킹그룹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유니버설플러그&플레이, 802.1b, 1394 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홈네트워크간의 상호 운영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표준을 제정하게 된다. 인텔은 PC업체와 가전업체 중 어떤 업체들이 디지털홈워킹그룹에 참여기로 했는지 등과 같은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인텔의 기업기술그룹담당 부사장인 프랭크 스피들러는 "디지털홈워킹그룹은 상호운용성에 초점을 맞춘 홈네트워킹 업계 전반이 구성하는 단체"라고만 설명했다. 현재 홈네트워킹 기술은 802.11b가 가격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으며 1~2Mbps의 빠른 대역폭을 제공하고 설치가 비교적 쉬워 선호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가전업체들은 초당 수 백Mb의 전송속도와 자체 콘텐츠 보호 구조를 갖춘 1394를 선호하고 있다.